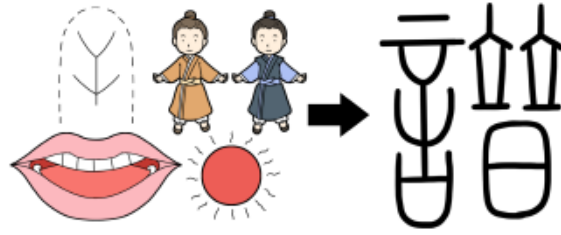


3(2)
-
181

회의문자 ①



譜

족보 보:

譜자는 '족보'나 '계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譜자는 言(말씀 언)자와 普(널리 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普자는 두 사람이 나란히 햇볕을 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넓다'나 '두루'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넓다'나 '두루'라는 뜻을 가진 普자에 言자를 결합한 譜자는 '두루 적어놓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족보란 씨족의 계통을 적어놓은 책을 말한다. 오랜 시간을 거쳐 기록된 것이니만큼 족보에는 광대한 혈통 관계가 적혀져 있다. 그래서 譜자는 혈통 관계를 두루 밝혀 놓았다는 의미에서 '족보'나 '계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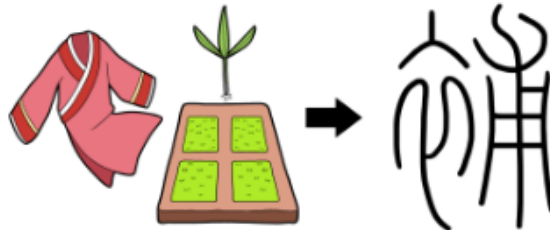
소전

譜

해서

3(2)
-
182

형성문자 ①



補

기울 보:

補자는 '깁다'나 '뜯다', '고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補자는 衣(옷 의)자와 甫(클 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甫자는 밭에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補자는 본래 옷의 해지거나 떨어진 부분을 꿰맨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니 補자에서 말하는 '깁다'나 '고치다'라는 것은 옷의 잘못된 부분을 수선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의 補자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보태다'나 '채우다', 고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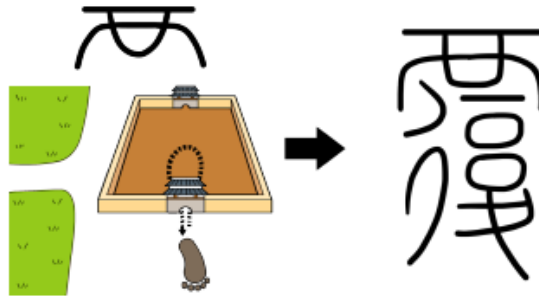
소전

補

해서

3(2)
-
183

회의문자 ①



覆

덮을 부
| 다시
복

覆자는 '뒤집히다'나 '되풀이하다', '덮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覆자는 '뒤집히다'라고 할 때는 '복'이라 하고 '덮다'라고 할 때는 '부'로 발음한다. 覆자는 𠂔(덮을 아)자와 復(돌아올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復자는 성(城)을 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돌아오다'나 '돌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覆자는 이렇게 나갔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의 復자를 응용한 것으로 '반복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覆자는 '덮다'라는 뜻의 𠂔자가 적용되어 '반복하다'나 '덮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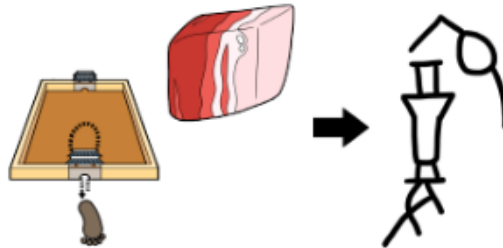
소전

𠂔

해서

3(2)
-
184

회의문자 ①



腹

배 복

腹자는 오장육부 중 하나인 '배'를 뜻하는 글자이다. 腹자는 月(육달 월)자와 復(돌아올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신체기관을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月자가 의미요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復자는 성(城) 밖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돌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腹자는 이렇게 '순환'의 의미가 있는 復자에 月자를 결합한 것으로 사람의 '배'를 뜻하고 있다.

𠂔

갑골문

𠂔

소전

腹

해서

3(2)
-
185

상형문자 ①



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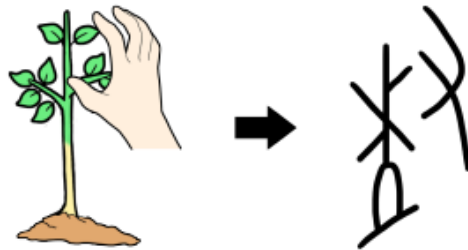
봉새 봉:

鳳자는 '봉새'나 '봉황'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봉황은 상서롭고 고귀한 뜻을 지닌 새이기는 하나 실존하는 새는 아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기린, 거북, 용과 함께 봉황을 사령(四靈)의 하나로 여겼다. 수컷은 봉(鳳), 암컷은 황(凰)이라고 하는데, 이를 합쳐서 봉황이라 한다. 실존하는 새가 아니므로 봉황은 상상으로 그려야 했다. 그래서 앞모습은 기러기, 뒷모습은 기린을 닮았다고 하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동물의 부위가 결합하여 있다. 그래서인지 갑골문에 나온 鳳자를 보면 상당히 복잡한 획으로 그려져 있었다. 봉황의 자태를 표현하려다 보니 획이 복잡해진 것이다. 이후 鳳자는 凡(무릇 범)자와 鳥(새 조)자가 결합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바람'을 뜻하는 風(바람 풍)자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186

회의문자 ①



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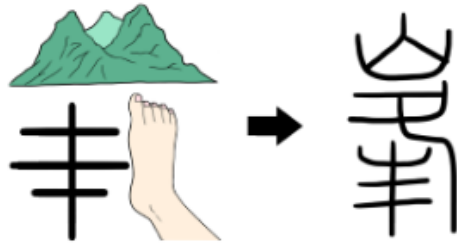
봉할 봉

封자는 '봉하다'나 '흙더미를 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봉하다'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봉투 따위를 열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갑골문에 나온 封자를 보면 흙더미 위에 나무를 심는 封 모습^封이 그려져 있었다. 고대에는 흙을 쌓고 나무를 심어 이를 국경으로 구분했다. 넘어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계선이었던 셈이다. 封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으로 '흙더미를 쌓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지만, 후에 '봉하다'를 뜻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187

회의문자 ①



峯

봉우리
봉

봉자는 '봉우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봉자는 山(되 산)자와 丰(꿀 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丰자는 '이끌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으로 응용되었다.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 모습에 山자가 더해진 봉자는 사람이 산을 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참고로 봉자는 山자가 좌측에 있는 峰자도 있는데, 글자의 위치만 다를 뿐 같은 뜻이 있다.

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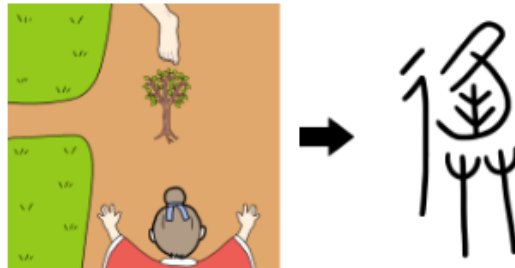
소전

峯

해서

3(2)
-
188

회의문자 ①



逢

만날 봉

逢자는 '만나다'나 '맞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逢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丰(꿀 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逢자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丰(밭들 공)자가 더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길가에 있는 나무에 당도한 누군가를 향해 양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나무는 만남의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逢자는 목적지로 찾아온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丰자가 발음역할을 하게 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逢

금문

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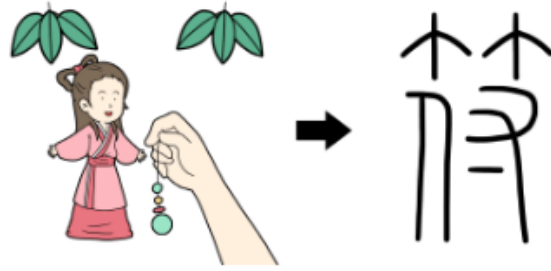
소전

逢

해서

3(2)
-
189

형성문자 ①



符

부호
부(·)

符자는 '부호'나 '기호', '증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符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付(줄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付자는 누군가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주다'라는 뜻이 있다. 符자는 본래 병력을 이동하는 데 쓰였던 '증표'를 뜻했었다. 고대에는 상급기관이나 국왕의 병부가 있어야만 병력을 이동할 수 있었다. 符자는 그 병부를 뜻하는 글자로 "대나무로 만든 병부를 주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병부에는 특수한 기호가 있어서 진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래서 符자는 후에 '기호'나 '부호', '공문'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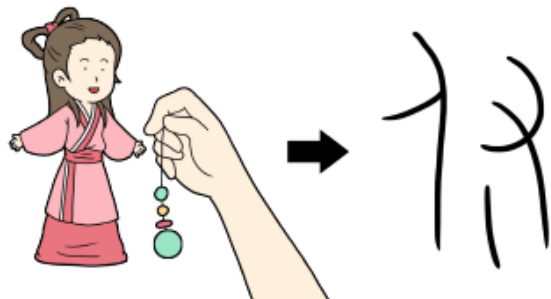
소전

符

해서

3(2)
-
190

회의문자 ①



付

부칠 부:

付자는 '주다', '부탁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付자는 人(사람 인)자와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寸자는 사람의 손목에 점을 찍은 것으로 '마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손'을 뜻하고 있습니다. 付자의 금문을 보면 사람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𠂇 그려져 있었다. 付자는 이렇게 물건을 건네주는 모습으로 그려져 '주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이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것은 심부름을 부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付자는 '맡기다'나 '부탁하다', '넘기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付

금문

付

소전

付

해서